

#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강 정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학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연구완성하는 문제, 나라의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리용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대담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새로운 지식들이 끊임없이 산생되고있으며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 의의와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자면 나라의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지식자원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지식자원의 창조는 우선 과학연구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과학연구사업에 의하여서는 주로 원리적성격의 지식자원이 확보된다.

과학연구사업은 객관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세계를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는 활동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높은 수준의 지식자원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한다.

과학연구과정에 그의 직접적담당자는 이미 습득한 지식보다 더욱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자연과 사회의 새로운 법칙과 원리의 발견은 이미 습득하고있는 지식과 함께 해당 전문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그와 련관된 분야의 여러가지 지식들을 습득할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

오직 풍부한 지식의 토대우에서 진행하는 과학연구만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새롭게 창조할수 있다. 때문에 과학연구사업자체가 그 담당자들로 하여금 꾸준히 학습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할뿐아니라 그 과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게 된다.

과학연구사업의 결과에 창조된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은 그것을 연구한 사람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로동력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자원으로 된다.

지식자원의 창조는 또한 생산실천활동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

생산실천에 의하여서는 주로 경험적지식이 확보된다.

생산실천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사람들은 생산실천과정에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를 제기할뿐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자기의 지적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게 된다.

사회발전의 초기기 동식물에 대한 지식과 력학지식, 화학에 대한 지식, 천문학, 지리학분야의 지식과 같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는 생산실천속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생산실천과정은 인류가 새로운 지식자원을 축적하고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실천은 해당 대상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과학기술지식과 기능을 요구한다.

새로운 직종의 출현은 새로운 과학기술지식, 기능과 숙련의 형성을 요구하며 따라서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과 직종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 기능을 소유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생산의 로봇화, 유연생산체계화, 컴퓨터화에 의한 새로운 직업과 직종의 출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활동이 요구하는 초보적인 지식과 기능을 소유할것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 새로운 지식자원을 더욱 확보해나가게 된다.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지식의 보급은 교육을 통하여 진행되며 그 과정에 지식소유자대렬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리용되는 지식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과학기술교육은 여러 분야들에서 이룩된 과학기술발전성과들을 깊이 체득시키는 기본공간으로 되고있으며 이것은 앞으로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물론 개별적사람들이 자습이나 로동실천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습득할수는 있지만 지난 시기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최단기간에 깊이있게 습득할수 있는것은 오직 과학기술교육이며 그에 의해서만 지적재부를 습득할수 있다.

지식경제시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보기술지식을 소유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과학기술교육을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 이것은 결국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지적능력을 높여 지식자원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과학기술교육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으로 진행된다.

정규교육에 의하여 로력후비(잠재적로동력)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식자원이 확보되게 된다.

정규교육가운데서 고등교육은 로력후비들의 질적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는 앞으로 발전된 사회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들을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있다.

현직근로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의 하나인 재교육을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못하였던 기계제산업시대와 달리 지식경제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에 맞게 생산기술공정이 현대화, 정보화되어가는것만큼 그에 맞게 지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자원을 부단히 새롭게 혁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으면 인차 낙후해질수 있으며 생산에 더는 종사할수 없게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는 현직근로자들의 수준을 생산과 기술발전의 요구에 따라 세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된다. 현직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생산에서 리탈함이 없이 보다 높은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체득하며 이것을 실천적로동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산지식으로 전화시킨다.

비정규교육에 의하여 현직근로자(현실적로동력)들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

식자원이 확보되게 된다.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정보망을 통하여 지식을 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현시기 수많은 정보지식자원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기 위한 사업은 컴퓨터망의 형성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컴퓨터망을 형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국부망, 인터넷망,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것이다.

국부망의 특징은 정보지식자원을 공유하는것으로서 여기에 가입하면 말단리용자들이 주컴퓨터(봉사기), 작업컴퓨터 또는 다른 개인용컴퓨터들과 연결될수 있고 다른 국부망과 연결하는 변환장치들을 공유할수 있을뿐아니라 망상의 임의의 말단들사이에 전자우편을 교환할수 있고 호상 통신에도 적용할수 있다.

인터넷은 망들을 연결한 망으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컴퓨터망체제이다. 다시말하여 전세계에 널려있는 여러 컴퓨터망들을 연결하여 여러가지 지식자원을 주고받을수 있게 만든 국제적인 컴퓨터망이다. 인터넷은 대단히 풍부한 망수단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지식자원을 공유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고속도로는 빛섬유로 구성된 고속정보망으로서 고속빛섬유전송망을 구축하여 정부기관, 학교, 연구기관, 기업소 지어 매 가정들을 모두 연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보환경을 보장해줌으로써 누구나가 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그림, 문자, 음성, 수값방식으로 자기가 연계를 맺으려는 대상과 정보교류를 진행하게 하여 지리적위치나 경제실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지식자원을 최대로 공유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정보봉사의 신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의 로화를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수 있다.

지식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

지식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지식자원을 생산과 옹게 결합시켜 그것을 산업화하는것이다.

새로운 지식자원의 창조와 전파, 보급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생산에 리용하여 경제의 발전을 다그치자는데 있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경제의 자립적토대강화와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가지 지식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창조할뿐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식자원과 생산실천을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그것을 산업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들에 생산기지를 적절히 꾸리는것이다.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들에 필요한 생산기지를 적절히 꾸리는것은 지식자원과 생산의 일체화과정을 다그치고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창설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나선다.

오늘날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첨단산업들은 대체로 실험실적방법과 시험공장단계를 거쳐 확증된 새로운 지식자원의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기지를 꾸리고 점차 산업화하면서 형성된것들이다. 따라서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산업들은 거의 모두가 지식자원-생산연합체의 형태로 존재하고있다.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들에 해당 부문의 연구사업과 관련한 생산기지를 적절한 규모로 꾸리게 되면 자기의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생산도 할수 있고 과학연구사업의 현실성과 효과성도 높일수 있다.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들에 필요한 생산기지를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중요과학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현존실험설비들과 중간시험공장들을 기술적으로 갱신개건하는것과 함께 성, 중앙기관들에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는것이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연구와 관련한 중요과학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최신실험설비들과 측정기구들을 마련해주고 이미 있는 중간시험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확대하여야 이 부문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다. 또한 성, 중앙기관들이 중요과학지구와 연구기관들에 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하여야 과학원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현실적조건과 해당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생산기지를 합리적으로 꾸리고 부단히 강화해나갈수 있다.

지식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지식자원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이다.

지식자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인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것은 인재의 보충적수요를 보장하며 그들이 자기의 전공부문에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능력껏 발휘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인재는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로 구분할수 있다.

이러한 인재들은 새 세기 강성국가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들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고급한 기능, 컴퓨터기술, 정보처리능력 등을 소유하고있다.

오늘날 새로운 부문들이 련이어 출현하고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인재들을 해당 전문부문에 배치하여야 그들이 소유하고있는 지식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다.

지식자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과의 협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날 지식의 전문화와 종합화는 혼자서는 완성할수 없는 중대한 과학적문제들을 제기하고 여러 부문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이 련합하여 공동으로 연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생물기술, 전자정보기술,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우주공간기술, 해양기술과 같은 새 기술분야들이 련이어 출현하고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은 그에 대한 한가지 전문지식만으로는 도저히 개척될수 없다. 실례로 우주공간기술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종합적인 현대과학기술의 산물로서 이러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자면 수학, 물리, 화학 등 여러 분야의 기초과학기술지식과 재료과학, 컴퓨터과학 그리고 분자기술, 전자기술, 자동화기술, 원격조종기술 등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알고있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지식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침으로써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